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지역개발 분야 -

최봉문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제4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지역개발 분야 -

최 봉 문

(목원대학교 교수)

I. 서론

- 충청남도(이하 충남)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역동적 변화”를 일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자 및 기업유치, 수출 등의 경제부문의 성장지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음.
-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방대 논산이전,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 보령-안면도간 연륙교건설사업 및 서해선 철도건설사업 추진,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등 ‘강한 충남’ 건설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 현재 충남 민선4기(2006~2010)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개발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세종시(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진행과 관련 파급효과의 흡수 노력
 - 둘째,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홍성·예산에 건설되는 도청이전지의 신청사 건립 및 신도시 건설 추진
 - 셋째, 최근 신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충남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최소화
 - 넷째, 도내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과 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균형발전의 과제 등임.

- 본 원고는 충남의 민선 10년을 되돌아보고 국가정책의 방향과 도정 방향에 따라 향후 충남 도정이 고려해야 할 지역개발 분야의 쟁점 사항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려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함.

II. 민선자치 10년의 충남 도정

1. 시기별 도정 중점시책²⁰⁾

1) 민선자치 1기(1995. 7~1998. 6)

- 충남의 민선1기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방 행정 조직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도정을 운영함.
- 충남의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4대권 개발경영구상」 및 「충남 New hope 21」을 수립하여, 충남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함.
- 지역의 인프라 차원에서는 「충남정보화 선언」을 통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보령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함.

2) 민선자치 2기(1998. 7~2002. 6)

- 민선자치 2기는 민선자치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발전기반을 확대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함.
 - 충남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생산기반을 확대함.
 -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긍지와 자신감 고취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 주요 성과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선언,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및 여가 산업 육성,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충남 선언」 등임.
- 지역경제의 건설화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3) 민선자치 3기(2002. 7~2005. 6)

- 민선자치 3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촉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내부의 자치역량과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됨.
- 주로 충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Heart of Korea)으로 육성하는데 치중하였음.
- 전국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촉구선언”을 주창하였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룸.
 - 첫째, 전국 최초로 농업테크노파크를 개원함.
 - 둘째, 내포지역을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지정받아 현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셋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기능적 연계를 위해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을 구축함.
 - 넷째,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석문공단 및 장항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진함.

2. 충남 민선4기 도정방향

1) 도정의 여건 변화

- 도정의 여건 변화를 자치행정분야, 도시·지역개발분야, 관광개발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 김용웅, 충남의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과제, 열린충남 2006.1에서 정리

○ 자치행정분야²¹⁾

- 첫째, 개발위주의 시대를 지배해 온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주민 참여와 민간역량의 증대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되어가는 사회체제로의 적응이 필요함.
- 둘째,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정부 의존적이던 종전의 하향식 체계에서 지방화·분권화의 시대로 바뀌어감에 따라 분권형 사회 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에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주민참여 증대와 강화가 필요함.

○ 도시·지역개발분야

- 세종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서천~공주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기반 인프라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종시 건설의 변질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기업 감소, 타 지역과의 입지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위협요인이 발생함.
- 지속적인 저성장 고령화의 문제, 특히 노령인구가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존 도시들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관광개발분야²²⁾

- 소득증대,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주5일 근무제 도입, 삶의 질 추구 등 관광산업 활성화의 긍정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충남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산업의 창출과 새로운 관광단지의 개발이 요구됨.

2) 도정 현황의 SWOT 분석

<그림 1>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개발 여건

기회요인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교류의 중심지로서 유리한 입지성 · 우수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역사·관광자원 보유 · 지역 내 풍부한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지역 간 공간 통합성 미흡 ·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 ·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약화 · 미약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 건설과 중추행정기능 이전 · 홍성·예산지역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 서해안·내륙지역 접근성 개선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주요기능 유출 가능성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활력 저하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 파괴 · DDA, FTA 확대에 1차 산업 경쟁력 약화

III. 충남 지역개발의 변화요인 검토

1. 국가차원의 도시여건 변화

1) 사회여건 변화

21) 육동일(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자치행정분야-, 열린충남 2006. 7

22) 윤양수(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관광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1) 인구구조의 변화

- 국가적 인구성장율의 저하로 현재 군 단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감소현상을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많은 도시들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인구의 15%가량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농촌지역은 초고령 사회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이나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부부가구나 1인 가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세수가 줄게 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도시경영능력을 저하시킴.
- 인구의 저성장 또는 감소는 도시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수요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수요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도시기능도신규주택수요가 줄고 기존시가지 환경의 노후화가 촉진될 것이며, 상업지구의 활력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출산율 저하에 따라 관련 도시 시설의 이용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재교육시설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대에 따른 도심회귀 등의 새로운 토지이용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도 전망됨.

2) 경제여건 변화

(1)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에 따른 도시양극화

-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창조계급이 도시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진 대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중소도시는 인구와 산업의 유출로 침체되어가는 도시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2) 소득계층의 양극화, 고용 불안정의 심화

-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구조전환에 따라 계층별로 소득구조의 양극화 심화와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기술인력과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고용구조에 심대한 지각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른 실업대책이 요구됨.

(3)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문화·참여·환경 등 요구 증대

- 소득수준의 증대와 노동시간의 감소 등으로 문화적 소비욕구가 증대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가 보편화되면, 도시민들의 생활양식이 개인적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집적되는(복지·문화·참여·환경 등의 요구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정책의 수요가 등장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이용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 도시정책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4) 외국인 거주자 증대에 따른 도시사회의 다양화

- 국가별로 자생적인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어, 외국인과의 문화갈등을 예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이 필요함.

3) 도시의 물적 환경 변화

(1) 대도시의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증대

- 대도시로의 경제활동의 집중은 대도시권에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

를 증대시켜, 가용토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적율, 용도기준, 토지이용규제방법 등이 도시정책의 주요변수로 등장함.

(2) 도시생활권 및 경제권의 광역화

- 전국에 걸친 고속철도의 연결과 고속도로망 확충, 일반도로의 고속화 등의 교통여건 개선과 광역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개인승용차의 보급 확대 등의 교통수단발달은 일상화된 광역적 도시생활권을 형성함.
- 중심도시로의 생활권 광역화가 예상되고, 광역경제권으로써 산업연계를 고려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계획개발을 위한 광역적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4) 기타 변화

(1) 자원 및 에너지부족에 따른 문제

- 한정된 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시대에 요구되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의 필요성 증대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촉구

(2) 친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건설 및 관리 요구

- 도시공간은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생태환경 속에서 고차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생태환경을 구축하고, 동물의 이동, 바람이나 물 등의 자연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구조를 만들어 내도록 함.

(3) 정보화

- 미래도시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고도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유통량이 급증하며, 일상생활에서 정보가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u-City 등 첨단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화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2. 충남의 지역개발 정책 검토

1) 지역개발 기본방향

(1) 2013년 세종도시 건설

- 2030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는 행정기능 관련 공공기관 중심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특정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과 연계된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형 국토의 교류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
- 세종시의 건설이 충남 내부에서 하나의 섬처럼 작용하여 주변의 개발여력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되지 않으며,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건설의 효과를 도내에 균형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²³⁾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관리기능 및 중심성 확보라는 상징적 효과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를 도전체로 파급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종시의 건설로 야기될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조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임.

(3) 고속 교통망의 개통과 공간구조의 통합²⁴⁾

- 2009년까지 사천-당진간, 당진-대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해안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등에 이어 지역내부를 관통하는 고속간선도로망으로 연결된 공간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됨.
- 수도권이나 세종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염려도 있지만, 자동차 등을 통한 지역접근성의 향상으로 지방중소도시들의 여가 및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유치를 통한 특화가 필요하고, 저성장 또는 쇠퇴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

23) 임재명(2006), 충남도청 이전효과, 열린충남 2006. 4

24) 정순오,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 도시·지역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침을 준비해야 함.

2) 지역개발 발전전략 (4대 개발경영권과 6대 정주생활권)

- 충남의 지역개발에 관련된 발전전략은 4대 개발경영권과 6대 정주생활권으로 구분됨(<표 1>, <표 2> 참조)
- 4대 개발경영권의 전략은 생산, 물류, 전통문화, 생명산업, 근교농업, 휴양 등의 여섯 가지 전략으로 구분

<표 1> 충남 4대 개발경영권역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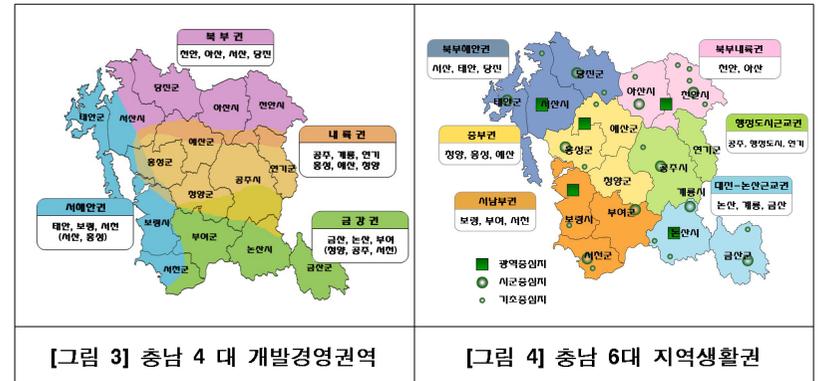
권역별	대상지역		개발방향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	아산만권 개발의 거점,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서해안권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 (논산)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백제권	공주, 부여, 예산, 청양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전통문화·청정환경·첨단녹색산업 융합 지대
금강권	논산, 연기, 금산		물류·유통과 첨단생명산업·도시근교 특화농업지대

자료 : 정순오(2006)

<표 2> 충남 6대 정주생활권역과 4대 개발경영권의 비교

6대 정주생활권역 / 대상지역		4대 개발경영권역 / 대상지역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	북부권
북부내륙권	천안, 아산			
남부해안권	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	서해안권
중부권	홍성, 예산, 청양			
백제고도권	공주, 부여	공주, 부여, 예산, 청양	(논산)	백제권
대전근교권	연기, 논산, 금산			
		논산, 연기,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청양)	금강권

자료 : 정순오(2006)



3) 권역별 현황과 과제

(1) 북부권

- 북부권의 산업화는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주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산업들의 입지로 활발하게 가시화되고 있음.

- 북부권의 과제는 연관 산업들의 동반입주가 원활해지도록 산업용지와 도로 등 인프라시설을 기민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인구의 안정적 정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환경의 개발을 촉진하는 일임.

(2) 서해안권

- 휴양관광기능 개발은 태안 안면도를 비롯하여 서산, 보령, 서천에 이르기까지 국제자본의 유치를 통한 개발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여가수요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고속도로로부터 주변 도시로의 연결도로망은 여전히 불비한 탓에 곳곳에 병목구간이 잦은 정체를 유발하여 관광인구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서해안 개발의 파급효과를 신속하게 흡수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임.

(3) 백제권

- 백제권은 백제문화권개발에도 불구하고 부여를 중심으로 한 고도보존정책의 부진으로 '선 고증-후 개발'의 등식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고도 부여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므로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매우 큰 과제임.

(4) 금강권

- 금강권은 일단 대전과 행복도시권의 근교농업지역으로 잠재력이 확보돼 있지만, 청정농업지역으로서 인정이 필요함.
- 첨단농업과 농업 연관 바이오산업의 접목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날로 높아질 지가에 대응하는 생산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이며, 재배시설에 대한 한 차원 앞서 가는 투자와 품질 유지를 위한 수준 높은 연구개발을 겸한 교육 시스템과 더불어 효과적인 마케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IV. 민선4기 후반부 지역개발 방향제안

1. 민선4기 전반부 평가

1) 지역균형발전 체계구축

-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균형발전특별회계) 구축
- 금강권의 균형발전 기본·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사업 추진
-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서해안까지 통합하여 시행됨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의 기회로 작용
-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으로 충남 서남부권의 성장동력을 마련

2) 도청신도시 건설과 세종시 지원

-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청이전신도시내 인구유입시설(산업시설, 대학 등) 유치
- 행복도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화 노력 경주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주민참여형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아파트 커뮤니티 만들기 시범사업,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심 중심가로 시범사업 등 추진

2. 민선4기 후반부 정책 기본방향

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1) 인구저성장에 따른 신·구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 성장하는 도시는 일방적인 신개발추진을 억제하여 기존시가지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하는 도시는 대형판매점, 종합병원, 문화회관 등의 대형도시기능을 기존시가지에 집중시켜 노후시가지와 도심 및 근린상업지역을 활성화함.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환경조성

-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사회적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도시(social city)'를 조성함.
- 사회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 집단별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지역 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함.

2) 경제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1) 도시화의 연착륙을 위한 도시 간 격차 해소

- 향후의 도시화는 인구저성장 내지는 감소에 의해 도시별로 도시발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 간의 성장 및 쇠퇴에 따른 도시환경의 격차를 줄이거나 차별화와 개성화를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의 안정화

- 인구저성장과 탈산업화 시대에 도시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산업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중핵도시는 투자, 생산, 생활의 장으로서, 또한 타 업종 간 교류촉진 등 산업을 일으키는 장소로서, 첨단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도록 유도함.

(3) 주민주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 생활권별 주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적 주거환경의 질을 보장하도록 함.
- 지역사회와 현장상황을 반영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함.

(4) 창조적 발전을 위한 문화환경의 다양성 수용

- 개방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인종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상호 공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함.
-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다문화체험거리를 지정하여 이를 육성함.

3) 물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제

(1) 도시성장에 대응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재생

- 도시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광역적 도시성장관리가 증추가 될 것이므로 생활권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증대를 위해, 광역적 연계가 가능한 광역산업기반시설 계획도 주요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될 것이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도시의 생활권 재편과 재정 부담을 효율화하기 위한 광역적 성장관리와 자율적 통합을 유도함.

(2)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검토

-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체계에 걸맞은 개별 도시정책 간 위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도시권 도시정책, 수도권 도시정책, 중소도시의 도시정책 등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함.

(3) 성숙기 도시의 안정화를 위한 도시내부 정비제도 검토

- 향후 도시성숙기와 쇠퇴기 등에 대응하고 자원 절약적 도시공간구조

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내부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함.

(4) 지역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조성

- 지역민에게 익숙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적 특색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동시에 전통을 현대화한 도시경관을 유도함.
-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로공간에서 보행자위주의 인간적인 도시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공공간에 대해 가로시설물, 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함.

(5) 지역의 성장원동력으로서 문화환경 기반구축

- 지역의 성장원동력으로서 미래성장산업인 예술가와 문화콘텐츠 창작을 육성하고 건축, 가로경관 등 문화환경을 구축함.
- 도시 전역에 문화집적지구를 지정하여 장르별 예술가 등의 창조적 활동 공간(장소)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창조활동의 중심지를 조성함.

4) 기타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시공간구조 구축

- 기존 시가지를 고밀도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중심개발 등 다양하고 유효한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킴.
- 대중교통이용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육성하고, 고밀개발을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약적 토지이용을 유도함.

(2) 친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공간구조 구축

- 대기환경, 수환경 등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부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기후변화를 유발하

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구축하도록 함.

- 자연환경보전을 배려한 토지이용계획, 친환경적 건축물 및 인프라의 설치, 생태녹지축 및 생물서식지구의 조성, 비오톱의 형성 등 미래지향적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함.

(3) 편리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 첨단정보통신기반은 미래도시의 경쟁력으로써 새로운 첨단정보의 창출과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며, 행정,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함.

3. 충남 민선4기 후반부 지역개발 정책 제안

1) 정책기본방향

(1) 도시경쟁력 제고

- 지역특성을 살린 성장관리정책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권역별 특성화 및 1시간 광역 생활권 기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천안·대전과 전철 연계) 구축
- 산업구조 고도화로 일등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규제외 획기적 개선(수요자 관점에서 토지이용 규제 제검토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

(2) 살기 좋은 충남 계획 수립

- 살기 좋은 도시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주도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를 추진·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
- 인간 중심적인 도시경관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창조사업(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심 중심가로 시범사업 등) 추진

(3)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과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 활성화 계획(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유도) 수립

(4)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

- 행복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 및 충남의 중소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재생
-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을 통하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뿐 아니라 대규모 기반시설(경전철 등) 설치 등을 추진
-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에 새로운 가치 창출

(5) 명품 신도시 조성

-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특구 조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품 신도시 조성
-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고도의(유비쿼터스 : ubiquitous) 정보서비스가 도시공간에 융합되는 최첨단 도시 조성

2) 지역개발 중점과제

(1) 도시성장관리 정책 모색

- 도시정책분야에서 토지이용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규제요소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2) 도시재생 정책 추진

- 도시내부시가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정책 추진
- 기존의 물적 환경정비에 치우치지 않고, 장소의 역사성·정체성, 지역의 공동체 구성,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합리적 개발이익환수 등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마련

(3)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

- 국가균형개발차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 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의 차질없는 신도시 건설

(4) 낙후도시 성장관리 정책 추진

- 지방중소도시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같은 특별 제정의 제공,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특별프로그램의 강구, 지역특화지구조성 등과 같은 특별개발제도의 운용 등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5) 도시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 도시환경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 주도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

IV. 결론

- 충남은 세종시,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 건설 분야의 많은 호제에 힘입어 강한 충남의 건설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투자유치 총액 35조 5,000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경제 제일도'로서의 위상을 굳혔다는 점이 민선4기의 전반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됨.
- 또한 충남 서북부 해안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로 엄청난 위기가 닥쳤음에도 그칠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과 봉사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도 전체의 강한 단결심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임.
- 그러나 이제까지의 충남의 성과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첫째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시대적인 흐름에 동반한 성과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러한 성공은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세종시의 계획변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 자체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활용한 성장이 필요하고, 인적자원과 행

정능력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또 다른 문제는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불균형이 점차 심화된다는 점으로, 고속도로 등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 기업도시 등의 개발과급효과를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연계 확산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과급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 여건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 문헌]

1. 국토연구원(2008), 미래도시정책연구방향 수립연구(안), 2008. 4
2. 김용-웅(2006), 충남의 민선자치 10년성과와 향후과제, 열린충남 2006. 1
3. 육동일(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자치행정분야-, 열린충남 2006. 7
4. 윤양수(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관광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5. 이상호, 임윤택(2006), 미래도시 충남수도의 개발방향과 계획원칙,2006. 4
6. 이의회외(2006), 경기도 지역·도시행정 정책기조, 경기논단, 2006. 여름
7. 임재영(2006), 충남도청 이전효과, 열린충남 2006. 4
8. 장연정(2008), 민선 4기 후반기 시정운영 발전 방향, 민선4기 2년결산과 후반기 시정운영의 발전방향 세미나 발표문, 2008. 6
9. 장연정(2008), 새 정부 출범과 충남도의 발전과제, 열린충남 2008. 4
10. 정순오(2006), 도청이전과 충남지역 발전방안, 2006. 4
11. 정순오(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도시·지역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12. 충청남도(2007), 도정백서